世界經濟秩序의 轉換과 韓國經濟의 課題

具　本　湖*

<目　次>

序　言
I. 世界經濟秩序의 變遷
1. 國際通貨體制의 不安
2. 資源波動—非油類 1次產品
3. 石油波動과 二極分化
4. 石油波動과 先進諸國의 利己的 經濟施策
5. 新國際經濟秩序 수립을 위한 國際協力方案—經驗의 敎訓
II. 우리經濟의 課題
1. 우리經濟의 構造的 特性
2. 새로운 開發戰略의 必要性
3. 當面課題
4. 長期課題
結　言

序　言

1971年 8月 「닉슨」大統領의 「달러」貨 防衛措置 이후 世界經濟는 連鎖的으로 不安한 양상들이 擴大되어 왔고 최근에는 1930年代와 같은 大恐慌이 되풀이 되리라는 憂慮까지 擡頭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國際經濟의 不安定性을 초래한 主要한 要因을 먼저 살펴 보고 앞으로 世界經濟가 어떻게 새 秩序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몇가지 主要한 對策을 摸索해 보고 끝으로 이렇듯 變遷하는 國際與件에 直面하여 우리 經濟는 어떻게 對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長短期別로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I. 世界經濟秩序의 變遷

1960年代의 世界經濟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半에 있어서는 物價의 安定속에서 착실한 成長을 記錄(年平均 實質 GNP 成長率 5.6%)하였으며, 後半에 들어서는 美國을 위시한 先進諸國의 賃金上昇, 公害問題, 國際關係의 對立 등으로 약간의 「인프레」

* 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研究部長

<表 1> 1960年代 世界經濟動向 (單位 : %)

	1960~1965			1965~1970			1960~1970		
	GDP* 實質증가율	CPI 上昇率	貿易 증가율	GDP* 實質증가율	CPI 上昇率	貿易 증가율	GDP* 實質증가율	CPI 上昇率	貿易 증가율
世界**	5.6	—	7.8	5.1	—	10.8	5.3	—	9.3
自由先進國	5.3	—	8.7	4.6	—	11.7	5.1	—	10.2
美國	4.9	0.4	6.5	3.3	2.7	11.2	4.6	1.6	8.8
英國	3.1	1.3	5.5	2.4	3.6	6.6	2.8	2.5	6.0
佛蘭西	5.9	2.6	9.2	5.7	3.6	12.4	5.7	3.1	10.8
西獨	4.9	1.3	10.4	4.7	0.7	12.6	4.6	1.0	11.5
日本	10.2	0 4	15.3	12.4	2.2	17.8	10.9	1.3	14.9
計劃經濟圈	6.1	—	7.3	7.1	—	8.7	6.7	—	8 0
開發途上國	4.6	—	5.1	5.8	—	8.6	5 2	—	6 8
한국**	6.2	17.2	5.8	11.1	7.9	41.4	8.6	12.4	22.3

* Source. *U.N. Yearbook of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1971, Vol. III

** GNP 實質增加率

傾向 및 成長의 緩慢(年平均 實質 GNP 成長率 5.1%)은 있었으나 그래도 60年代 전반에 걸쳐 世界經濟는 순조로운 GNP의 成長(年平均 實質 GNP 成長率 5 3%)과 國際交易量의 계속적인 增大를 示顯하였다(年平均 國際貿易增加率 9.3%).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는 國際通貨體制의 不安, 資源民族主義의 擡頭, 石油波動 및 이에 따른 先進諸國에 있어서의 利己的經濟政策(beggar-thy-neighbor policy)의 追求 등으로 世界經濟는 1930年代 이래 前例를 볼 수 없는 不況과 不安의 局面에 접어들게 되었고, 지난 해에는 大部分의 先進國이 「負」내지 「零」의 成長을 기록한데다가 급격한 物價上昇 및 國際收支赤字라는 三重苦를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직도 이러한 三重苦의 問題가 쉬이 解決되리라고 展望하기 힘든 局面에 處해 있다.

우선 이러한 世界經濟의 變遷過程을 主要要因別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國際通貨體制의 不安

〈問題點〉 2次大戰 이후 「브레튼 우즈」體制로 알려져 온 國際通貨體制는 金과 基軸通貨(美貨 및 英貨)本位體制로 各國의 中央銀行은 金과 基軸通貨를 그 나라의 國際準備資產(international reserve)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1960~70年間에는 年平均 9.3%로 급속히 伸張하여 온 世界貿易量의 증가에 따라 準備資產에 대한 需要도 같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金의 供給增加率은 年平均 1%에도 未達함으로써 基軸通貨 특히 美「달러」貨의 國際準備資產 比重이 급속히 伸張되었다.

「달러」不足(dollar shortage)으로 알려진 1950年代에는 그래도 國際準備資產으로서의 「달러」貨의 肥大現象에 대하여 그렇게 問題視되지 않았으나 1960年을 전후하여서는 이러한 國際準備資產으로서의 「달러」貨의 肥大現象이 장기적으로 維持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높아졌고, 그 결과 國際準備資產으로 「달러」보다는 金을 選好하는 傾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金에 대한 投機 및 「달러」貨 保有國 및 保有者는 金으로 兌換하려는 현상이 露骨化되었고 「달러」供給은 더욱 增大壓力을 받게 되어 이른바 달러過剩(dollar glut) 현상을 빚어내게 되었다.

이에 對應하여 美國은 「달러」貨 防衛政策을 택하게 되었고 外國投資에 대한 「自發的抑制」(voluntary restraint), 非中央銀行에 대한 金兌換의 中止와 함께 마침내는 金兌換에 대한 全面的인 中止에 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달러」貨가 弱勢通貨로 인정되자 外換投機는 더욱 活潑化되어 美國이 결국 「달러」統制나 輸入制限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는 憂慮와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1971年 7月 「닉슨」措置가 취해졌던 것이다.

이 措置 이후 「달러」貨의 價値는 완전히 金과 격리되게 되었고 固定換率에서부터 國際金融市場에서 流動的으로 決定되게 되었다.

〈改革 및 展望〉 그 결과 深化된 國際通貨體制의 不安定을 除去하고 世界貿易의 원활한 伸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國際通貨體制의 確立을 위한 努力이 加一層 傾注되게 되었고 지난해 7月에는 SDR本位制의 出帆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16個國 通貨의 加重平均에 의해 價値가 결정되는 新 SDR에 대한 信賴度나 黑字國의 SDR에 대한 需要度는 아직 未知數이다. 뿐만 아니라 SDR과 開發援助의 「링크」問題, 「오일 달러」의 還流問題 등과 關聯된 適正 SDR의 創出水準 및 配分의 決定은 상당히 어려운 試鍊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變動換率制가 一般化되어 가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SDR價値도 또한 流動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國際準備資產의 價値安定을 希求하는 一角에서 金의 復活은 個別國家의 利益과 결부되어 계속 되풀이 主張될 것이다.

이렇듯 「金의 問題」, SDR과 開發援助와의 「링크」問題, 「오일 달러」의 還流問題, 「換率調整問題」 등에 관해 아직도 未解決이고 또 未知數인 점이 허다히 남아 있다.

즉 새로운 國際通貨體制의 確立을 위한 努力으로 어느 정도 結實을 가져온 것만은 사실이지만 多國間의 利害相衝으로 인해 아직도 安定性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體制의 確立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時日이 要할 것으로 전망된다.

2. 資源波動—非油類 1次商品

1次產品의 國際價格은 1960年代와 1972年까지만 해도 상당한 安定勢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72年 下半期부터 1次產品의 價格은 暴騰하였다(〈表 2〉 參照).

〈表 2〉 主要 1 次產品 國際價格 推移 (1967~69=10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80
食飮料	115	116	135	181	297	245	250
農產品·原材料	95	92	115	201	213	199	230
鑛物·金屬	111	102	104	146	175	158	205
全商品(石油除外)	108	105	119	176	244	211	235
石油	96	123	139	200	665	665	?

이러한 異例的인 1次產品價格의 暴騰은 앞서 설명한 國際通貨體制의 不安 및 換率의 流動化에 따른 現物 특히 原資材投機가 加熱된데 더하여 1972~73年의 世界的인 好況으로 인한 需要增大 및 同期間의 世界的 凶作으로 인한 農產品의 供給減少가 겹쳐 惹起된 것으로 생각되며 長期的 趨勢의 變遷(structual change) 보다는 景氣에 의해 주로 影響(cyclical change)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石油를 除外한 大部分의 1次產品은 世界的 不況으로 인해 이미 지난해 4, 5月頃을 고비로 下落하기 시작하였고 一部 農產品價格의 계속적인 强勢는 지난 해의 凶作에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長期的 趨勢로 보면 石油를 제외한 1次產品의 大部分은 앞으로 73~74年에 비해 安定 내지는 下落할 可能性이 큰 것으로 展望된다. 油類의 경우는 所得彈力性이 높을 뿐 아니라 限定된 埋藏量이 數個國에 集中되어 있고 또 石油代替產業의 費用이 높기 때문에 石油武器化에 成功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1次產品의 경우는 所得彈力性이 비교적 낮은데다가 代替產業의 開發이 活潑하고 또 生產可能性이 數個國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石油와 같이 國際칼텔形成이 容易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世界銀行에서는 石油를 제외한 대부분의 1次產品 價格은 75年中에 下落하고 그 후에도 상당히 安定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國際通貨體制의 不安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換率이 流動的이고 또 國際「인플레」가 尙存하고 있어 現物投機現象이 再現될 危險性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國際景氣가 回復되면 반사적으로 資源民族主義가 다시 擡頭될 可能性마저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石油波動과 「二極分化」

石油의 경우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1次產品 보다 그 價格이 이미 월등히 上昇하였을 뿐 아니라 OPEC諸國들에 의한 石油의 武器化 내지는 獨寡占(international cartel) 形成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石油價格의 將來는 經濟的 要因만으로는 說明하기 힘들며 政治的 要因이나 힘의 關係와 複合的으로 考慮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鮮明한 展望은 어렵다고 하겠다.

OPEC諸國의 石油生產 및 埋藏量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合人口가 1,100萬名

〈表 3〉 OECD의 石油生產 및 埋藏量 (1973)

	人口 (百萬人)	1人當 GNP (1972)	확인매장량 (10億톤)	生產量 (百萬배럴/日)	可採年數 (73年생산량기준)
그룹 Ⅰ					
사우디아라비아	8.1	550	19.3	7.5	51
리비아	2.1	1,830	3.4	2.1	32
쿠웨이트	0.9	4,090	10.1	3.0	66
카타르	0.2	2,530	0.9	0.5	31
아부다비	0.1	3,220	2.9	1.2	45
小計 OPEC構成比	11.5	—	36.4 65%	14.3 48%	(평균) 50
그룹 Ⅱ					
이란	31.9	490	8.2	5.9	28
베네주엘라	11.3	1,240	2.0	3.5	11
이락	10.4	370	4.3	2.0	44
알제리아	14.7	430	1.0	1.0	20
小計 OPEC구성비	68.3	—	15.5 28%	12.4 41%	(평균) 25
그룹 Ⅲ					
나이제리아	73 4	140	2.7	2.0	27
인도네시아	125.0	90	1.4	1.3	22
小計 OPEC구성비	198.4	—	4.2 7%	3.3 11%	(평균) 25
總計	278.2		56.1%	30.2%	

에 불과한 5個國에 全世界石油生產 및 埋藏의 相當量이 集中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石油價格體系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들 諸國의 貿易黑字는 每年 엄청난 規模로 累積되

어 갈 것이다. 그리고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사 石油의 實質價格이 7弗線(1974年價格)으로 下落한다 하더라도 石油代替產業 開發의 遲延 및 OPEC諸國으로 부터의 石油收入의 增大로 이들 諸國의 貿易黑字는 減少될 것으로는 展望되지 않는다.

〈表 4〉 石油輸出國 收入展望 (1974年 價格 10億弗)

	그룹 Ⅰ	그룹 Ⅱ	그룹 Ⅲ	總收入
(배럴當 9.60弗인 경우)				
1 9 7 4	—	—	—	114
1 9 8 0	49	47	13	109
1 9 8 5	51	54	16	121
1 9 9 0				
(배럴當 價格이 1980年까지 7.00弗로 引下될 경우)				
1 9 8 0	52	41	11	103
1 9 8 5	58	52	12	122

이렇듯 累積될 產油國의 經常收支黑字는 곧 非產油國들의 經常收支赤字의 累積을 초래할 것이다.

IMF의 推算에 의하면 產油國을 제외한 非共產圈 世界諸國의 經常收支惡化가 1974年중에 總 650億弗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곧 產油國의 黑字로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趨勢가 계속되면 世界의 經常收支는 產油國의 黑字와 非產油國의 赤字라는 二極分化가 더욱 深化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累積될 「오일 달러」의 合理的인 還流가 이루어질 수 있는 國際協力 및 秩序없이는 世界經濟는 해가 갈수록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짙다고 할 것이다.

4. 石油波動과 先進諸國의 利己的 經濟施策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諸國은 지난 한 해에 약 400億弗에 가까운 史上未曾有의 貿易赤字를 보였으며 새해에도 이러한 貿易赤字는 擴大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物價에 있어서도 先進諸國은 非戰時下에서는 볼 수 없던 2階段數値의 인플레 (two digit inflation)를 겪었으며, GNP에 있어서도 많은 先進諸國이 負의 成長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不況 속의 物價高」및 貿易赤字는 油類波動 직후에 이미 專門家들이 豫見한 바이지만 1974年의 실제의 GNP의 後退는 原油價格 上昇으로 인한 當初豫測보다 크게 후퇴한 것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表 6〉 參照). 이의 主要因으로서는 石油波動이라는 어려움을 克服함에 있어서 先進諸國이 自國의 利益만을 追求한 이른바 beggar-thy-neighbor policy가 크게 作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OECD諸國은 한결같이 金融·財政手段을 總需要

<表 5> 石油波動과 經常收支 (單位 : 10億弗)

	1973	1974	1975	1973 下半期	1974 上半期	1974 下半期	1975 上半期	1975 下半期
카나다	−0.43	−1.50	−3.75	−0.35	−0.49	−1.05	−1.45	−2.30
美國	0.51	−3.25	−7.50	2.40	0.74	−4.00	−4.00	−3.50
英國	−3.11	−9.00	−6.50	−2.01	−4.84	−4.15	−3.75	−2.75
佛蘭西	−0.68	−7.50	−6.25	−0.65	−3.60	−3.90	−3.55	−2.70
西獨	4.54	9.00	6 00	2.72	5.60	3.40	3.20	2.80
日本	−0.14	−4.75	0	−1.33	−4.25	−0.50	−0.10	−0.10
伊太利	−2.42	−8.30	−5.75	−1.18	−4.53	−3.80	−3.30	−2.45
OECD	2½	−37½	−38½	½	−16	−21½	−20½	−18

<表 6> 石油波動과 OECD諸國의 GNP動向 (單位 : 實質增加率 %)

	1973 實績	1974 當初展望(73/7)	1974 修正展望(74/1)	1974 暫定推計	1975 展望(74/12)
카나다	7.0	5.5	4½	4½	3½
美國	5.9	2½	0	−1⅜	−2
日本	10.4	7½	1⅜	−3½	2
佛蘭西	6.3	5½	4¼	4⅜	3
西獨	5.5	3½	⅜	1	2½
伊太利	5.2	7½	5	4½	−¼
英國	5.6	3½	2½	−½	1⅜
OECD 平均	6.6	3¾	2	¼	½

抑制에 置重하였고 貿易에 있어서는 輸入制限을 强化하는 傾向을 대하였다. 특히 日本과 西獨은 輸出「덤핑」등 手段으로 輸出振興策을 强化함으로써 餘他 競爭國의 輸出이나 國際收支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5. 新國際經濟秩序 수립을 위한 國際協力方案 —經驗의 敎訓(Lessons from Experiences)

石油價格引上으로 인한 經常收支赤字를 打開하기 위한 先進諸國의 上記한 總需要抑制, 輸入制限, 輸出振興 등의 諸施策은 油類消費國全體의 見地에서 보면 결국 貿易赤字를 解消하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石油消費國 全體의 成長을 鈍化시킬 것이며 國際分業에 立脚한 效率的인 開發에 큰 沮害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1930年代의 歷史的 敎訓을 더듬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로 지난해 體驗한 바라 하겠다.

이러한 見地에서 보면 새로운 國際協力이 이룩되지 못하면 1930年代보다 더 혹심한 世界大恐慌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리라는 憂慮마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난 해에 비해 先進諸國이 總需要抑制 一邊倒에서 다소 景氣浮揚으로 轉換하는 氣味가 보이고 또 「오일 달러」의 合理的인 還流나 新石油價設定 등에 걸친 새로운 國際協力이 活潑히 摸索되고 있음은 多幸이라고 보겠다.

OPEC諸國중 上記 〈表 3과 4〉 중 「그룹」Ⅱ 및 Ⅲ의 경우는 自國의 開發投資擴張 등으로 國內需要를 振作시킴으로써 經常收支均衡을 이룩하는 國際協力이 가능할 것이며, 「그룹」Ⅰ의 경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都合人口 1,100萬名에 불과하므로 經常需要振作에도 限界가 있어 이들 諸國의 「오일 달러」의 擴大 累積은 불가피할 것이며 따라서 이들 國家들로 부터는 「오일 달러」의 合理的인 還流라는 方向에서 國際協力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美國을 제외한 先進諸國은 2次大戰後 상당한 期間에 걸쳐 經常收支赤字를 體驗한 바 있고 또 그 期間에는 經常收支赤字 보다는 戰後復舊 그리고는 成長과 雇傭問題에 優先을 둔 施策에 힘입어 순조로운 經濟成長을 해온 것을 오늘날 美國을 포함한 先進諸國 모두가 큰 教訓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같은 規模의 赤字라 하더라도 成長하는 經濟에서는 그 負擔이 차츰 輕減할 것이나 沈滯하는 經濟에서는 그 負擔이 增大된다는 것은 自明한 論理이다.

뿐만 아니라 石油波動으로 인해 가장 냉혹한 被害를 입어 온 非産油開發途上國을 위해서도 先進諸國은 더욱 적극적인 開放政策으로 成長을 追求함으로써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需要를 增大시킬 것이 所望스럽다.

1930年代와 같은 大恐慌을 防止하고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確立을 위해서는 先進諸國은 beggar-thy-neigbor policy를 하루 속히 止揚하고 縮小均衡보다는 最適成長爲主의 觀點에서 長期的均衡을 되찾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며 OPEC諸國중 「그룹」Ⅱ와 Ⅲ은 自國開發에 投資를 확장함으로써 輸入需要를 증대시켜 國際收支黑字의 累積을 피하는 한편 「그룹」Ⅰ 諸國은 合理的인 「오일 달러」의 還流에 적극적으로 協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國際協力의 構想은 經濟學者나 國際機構의 專門家들 사이에는 활발히 論議되고 있으나 실제 各政府가 自國利益爲主에서 脫皮하여 과연 이러한 國際協力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不透明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 우리 經濟의 課題

上記한 國際經濟의 여러 어려움은 우리 經濟에도 또한 큰 어려운 試鍊을 안겨 주었다. 지난해 우리 經濟는 약 45%에 달하는 物價(都賣)의 上昇, 약 18億弗의 經常收支赤字, 그리고 4.5%에 불과한 下半期의 實質成長鈍化라는 三重苦를 體驗하게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打開하기 위해 政府에서는 12.7特別措置를 취한 바 있으나 이러한 特別措置로 當面한 三重苦問題가 얼마만큼 緩和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未知數이고 근본적으로는 國際景氣의 回復에 期待를 걸고 있는 것이 우리 經濟의 現實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不透明한 國際經濟에 우리 經濟의 向方이 결정되고 있는 이와 같은 現實은 우리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自立을 위한 經濟體制를 하루라도 빨리 完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緊迫感을 강요하고 있으나 反面 主要原資材의 輸入없이는 成長이 不可能한 우리 經濟의 基本構造의 脆弱性을 감안하면 우리 經濟의 當面課題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打開, 調和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集約된다고 하겠다.

1. 우리經濟의 構造的 特性

우리나라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資本蓄積이 微弱할 뿐 아니라 賦存資源이 빈약한 基本的인 脆弱性을 가진 反面, 低廉하고도 良質의 勞動力이 풍부하다는 것이 最大의 强點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弱點을 克服하고 强點은 최대로 利用하기 위한 方法으로 우리 經濟는 지난 10餘年間에 걸쳐 海外資本을 적극 導入하고 또 狹小한 國內市場에서 오는 여러 制約을 克服하기 위해 이른바「輸出先導的인 開發戰略」(outward-looking policy)을 택하여 1973年까지는 臺灣과 함께 開發途上國에서는 가장 빠른 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 즉 年平均增加率 약 40%에 이르는 급속한 輸出伸張은 지난 10餘間의 高度成長에 크게 寄與한 것이다.

2. 새로운 開發戰略의 必要性

그러나 앞서 지적한 國際經濟의 變遷은 앞으로 輸出伸張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原資材確保에 不調를 면치 못하게 할 것이며 아울러 國際資本市場의 不安으로 外資導入의 梗塞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對內的으로는 그동안 收益率에 主眼을 둔 投資

政策을 指向해 옴으로써 農村開發이나 敎育, 保健 그리고 庶民生活의 改善을 위한 諸投資는 상당히 등한시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諸要素를 감안할 때 此際에 새로운 開發戰略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大略하여 選擇可能한 對應方案(alternatives)으로서 다음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1) 첫째는 國際與件의 變遷에도 불구하고 우리 經濟의 根本的인 脆弱性을 가장 能率的으로 克服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從來의 輸出先導的인 開放體制의 開發戰略 이른바 outward-looking policy를 그대로 堅持할 수 밖에 없는 方法일 것이며,

(2) 둘째 方案으로는 하루 속히 貿易依存度를 줄여 自給度를 向上시킴으로써 거센 國際經濟의 變遷으로 인한 被害를 最少化하자는 內向的 戰略(inward-looking policy)을 생각할 수 있겠으며,

(3) 세째로는 上記한 두 方法을 調整, 調和한 이른바 均衡成長(balanced growth)을 圖謀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첫째의 方法은 激動하는 오늘의 國際經濟의 解決을 지나치게 樂觀視하는데 따른 非現實的인 前提로 생각되며, 둘째 方法의 경우는 우리 經濟의 基本的 脆弱性에 비추어 成長의 鈍化가 豫想보다 오히려 더 클 것이며 그 동안 投下해 온 設備投資를 감안하면 經濟的 被害(economic cost)도 또한 尨大할 것이다.

따라서 (1)項과 같은 政策의 硬直性을 止揚하고 (2)項과 같은 敗北的이고 浪漫的인 接近方法보다는 國際情勢變遷에 좀 더 敏捷하게 對應하는 調整, 均衡의 接近方法이 보다 現實的이며 長期的 對應策으로 생각되며 以下에서는 이러한 觀點을 長短期別로 구분하여 略述하기로 하겠다.

3. 當面課題

(1) 새로운 課題

國際經濟의 급격한 變遷은 우리에게 經濟自立度 向上을 위한 새로운 重點目標의 設定을 强要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선 食糧增産 및 國內資源開發은 물론 輸入代替産業의 적극적 育成에 倍前의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동안 多少 等閑視해 온 福祉均霑의 推進을 위한 住宅建設, 敎育開發, 保健施設의 擴張, 庶民生活의 環境改善 등에 대한 重要性이 새롭게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分野에 대한 投資는 비단 그 收益率이 낮다고 하더라도 安定과 內實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安定과 國民의 融和를 위해서는 「인플레」의 公平한 負擔이 또한 主要한 當面課題일 것이다.

(2) 基本的인 課題

앞으로도 相當한 期間 世界的인「스태그플레이션」이 豫想되고 이에 따라 우리 經濟도 不況과 國際收支의 赤字가 계속될 展望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최대한 打開하기 위해서는 輸入의 抑制, 輸出의 增大, 外資導入의 적극화 등은 從來와 같이 당분간 主要한 政策目標로 堅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消費節約과 貯蓄增大의 緊要性은 새삼스러이 强調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3) 政策手段

이러한 課題를 克服하기 위한 主要政策手段으로 첫째, 財政投資는 經濟自立度向上이나 安定 및 福祉均霑을 위한 投資가 새로이 浮刻, 强調되어야 할 것이지만 短期的으로 輸出産業이나 重化學工業의 推進을 갑자기 減速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음으로 金利와 換率政策에 있어서는 從來의 硬直性을 止揚하고 彈力的으로 運營하여야 할 것이다. 國際「인플레」와 國際高金利 趨勢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金利가 15%線에서 硬直되어 왔음은 外資導入에 隘路要因이 되었을 것이며 또한 45%라는 엄청난 物價上昇에 비추어 15%線의 金利는 貯蓄意慾을 減退시킴은 물론 貨幣需要를 增大시킴으로써 다시 物價上昇을 刺戟하였을 것이다. 또 換率運營의 硬直性은 輸出의 競爭性을 人爲的으로 弱化시켰으며 오히려 投機나 市場의 不安定을 助長해 왔을 것이다. 그리고 不要不急한 輸入의 抑制가 間斷없이 主唱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關稅政策은 과연 얼마나 彈力的으로 運營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火急한 政策的 調整이 要望되는 것으로 物價의 現實化 내지 調整의 必要性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石油를 비롯한 原資材價格의 暴騰으로 國際商品의 相對價格構造(relative prices)는 急變하였다. 이에 對應한 效率的인 國內資源의 配分이나 産業構造의 改編은 現實的인 物價構造의 改編없이는 이룩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多幸히 政府가 최근에 大幅的인 物價現實化를 推進하고 있으나 아직도 主要糧穀에 대한 調整은 斷行되지 않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도 쌀·보리·밀가루·肥料 등 4個品目에 대한 財政補助는 2,000億원에 달했고 今年에도 3,000億원에 이르는 財政補助를 豫算에 策定하고 있다. 이러한 財政補助를 價格現實化를 통해 대폭 解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財政補助縮小에 따른 막대한 資金은 食糧增産이나 庶民生活의 安定基金으로 轉用하는 것이 훨씬 效率的일 것이다.

끝으로 검소한 生活氣風의 推進과 庶民生活의 安定 및「인플레」의 公平한 負擔을 위한 補完策은 계속 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一聯의 改革은 이미 1.14緊急措置에 상당

히 反映되기는 하였으나 未洽한 部門에 대한 계속적인 補完이 뒤따라야만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4. 長期課題

長期的으로는 激動하는 國際經濟의 變遷과 새로운 秩序形成의 必要性, 그리고 앞서 지적한 우리 經濟의 特殊性 및 과거 10餘年에 걸쳐 이룩한 經濟開發의 基盤을 감안한 安定과 成長의 均衡을 經濟運營의 基本方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成長과 貿易依存度의 調和를 감안하여 自立度를 점진적으로 强化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GNP成長이나 輸出伸張率을 經濟企劃院의 長期展望(1973.8)에서 策定한 수준보다는 多少 下向調整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表 7〉 및 〈表 8〉 參照). 그리하여 1960年代의 輸出增加率 對 GNP成長率의 比率 4 : 1은 점진적으로 縮小하여 1980年까지는 1 : 1의 水準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表 7〉 各成長率下의 自立條件

	1967~71平均	1972~76平均	1977~81平均
<11% 成長>			
輸出增加率			16.5%
輸入彈性値			1.5
限界貯蓄性向			46.0
限界資本係數			3.0
<9% 成長>			
輸出增加率	35.3%	30.1%	15.0%
輸入彈性値	2.6	1.4	1.3
限界貯蓄性向	16.0	32.0	41.0
限界資本係數	2.6	3.1	3.0
<8% 成長>			
輸出增加率			14.2%
輸入彈性値			1 3
限界貯蓄性向			30.0
限界資本係數			3 0

※ 輸出增加率은 1974年價格에 의한 實質增加率임.

둘째, 世界的 食糧不足에 대비하여 食糧增産과 새마을運動에 投資를 擴張하여 農業成長率을 과거 10餘年間의 平均成長率 3.9%(1962~71)에서 적어도 5.5%이상으로 向上시켜 食糧의 自給度를 强化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財政投資의 擴大뿐 아니라 適正한 穀價政策이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表 8〉 輸出·鑛工業成長·GNP成長比較

1974年 價格
單位：%, 金額：百萬弗

	1967—71平均	1972—76平均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77—81平均
〈11%成長〉											
1. 貿易輸出 (金額)						20.6 (7,899)	17.5 (9,282)	16.5 (10,813)	15.0 (12,435)	12.9 (14,039)	16.5 (55,105)
2. 鑛 工 業						16.4	16.4	16.4	16.4	16.4	16.4
3. GNP						11.0	11.0	11.0	11.0	11.0	11.0
〔1/2〕						1.3	1.1	1.0	0.9	0.8	1.0
〔1/3〕						1.9	1.6	1.5	1.4	1.2	1.5
〈9% 成長〉											
1. 貿易輸出 (金額)	35.3 (3,493)	30.1 (21,747)	11.6 (4,700)	18.0 (5,550)	18.0 (6,550)	20.6 (7,899)	17.0 (9,242)	13.0 (10,444)	12.4 (11,739)	12.0 (13,147)	15.0 (52,471)
2. 鑛 工 業	20.3	17.9	16.5	13.9	14.0	14.5	14.0	13.7	13.5	13.0	13.7
3. GNP	10.5	9.4	8.5	7.0	8.0	9.0	9.0	9.0	9.0	9.0	9.0
〔1/2〕	1 8	1.7	0.7	1.3	1.3	1.4	1.2	0.9	0.9	0.9	1.1
〔1/3〕	3.4	3.2	1.4	2.6	2.3	2.3	1.9	1.4	1.4	1.3	1.7
〈8% 成長〉											
1. 貿易輸出 (金額)						20.6 (7,900)	15 3 (9,100)	12.0 (10,200)	12.7 (11,500)	10.4 (12,670)	14.2 (68,390)
2. 鑛 工 業						13.5	13.0	12.7	12.5	12.0	12.7
3. GNP						8.0	8.0	8.0	8.0	8.0	8.0
〔1/2〕						1.5	1.2	0.9	1.0	0.9	1.1
〔1/3〕						2.6	1.9	1.5	1.6	1.3	1.8

세째, 에너지對策으로 石油에너지의 消費節約策과 石炭, 水力, 原子力 및 燃料林 등 國內에너지開發策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看過해서는 안될 점은 自給度의 强化에 置重함으로써 經濟性이 지나치게 無視되어서는 안될 것이다(例：原子力 및 水力發電).

네째, 雇傭機會의 增大 및 輸出稼得率의 向上을 위해서 技術集約的 產業의 育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敎育向上, 科學技術과 人力開發에 좀 더 革新的이고 集中的인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主要 中間財의 輸入代替의 促進을 위해 機械工業등 重化學工業은 앞으로도 계속 推進되어야 할 것이나 에너지費用의 急上昇을 감안한 合理的인 產業構造로의 改編을 期할 수 있도록 깊이 考慮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都市 農漁村間의 均衡과 所得分配의 均霑을 위해서 金融 및 稅制의 補完은 물론 이를 위한 劃期的인 政府支出이 적극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安定과 社會福祉의 向上을 위한 諸事業, 특히 人口增加의 調節, 庶民住宅의 擴張, 國民保健의 改善, 生活環境의 改善 등 社會開發投資의 擴張을 가장 主要한 目標의 하

나로 設定함으로써 이에 대한 果敢한 推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結　　言

最近의 國際經濟의 不安定性 및 不況의 主要要因을 살펴보고 새로운 國際協力의 確立이 과거 어느 때보다 緊要함을 指摘하였다. 그러나 國際經濟는 앞으로도 상당한 期間에 걸쳐 昏迷를 거듭할 것이며 또 不透明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不安한 國際經濟情勢에 直面하여 우리는 어떻게 對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長短期別로(準備期間의 制約으로 計量化의 未備나 分析의 未洽함을 是認하면서) 平素의 생각을 整理해 보았다.

世界經濟가 과거 어느 때보다 不透明하고 또 不安하기 때문에 뚜렷한 豫測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政策當局은 여러가지 可能性에 對備한 融通性 있는 計劃(contingency plans)을 準備하여 두고 既定된 어떤 目標나 對策에 지나치게 執着하지 말고 對外與件의 變化에 敏捷하게 對應할 수 있는 適應的 政策姿勢가 어느 때보다도 重要함을 此際에 깊이 强調하면서 이 글을 끝내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1. *Alternative Strategies for Korea's Industrialization*, 1974. 9, 金滿堤
2.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樹立을 위한 基本戰略, 1974. 12, 金滿堤
3. *Restructuring the World Economy*, November 1974, Hollis B. Chenery
4. *Economic Outlook*, December 1974, OECD
5. 1980年代의 世界經濟, 1973. 6, 具本湖
6. SDR의 多國通貨問題, 國會報, 1974年 8,9月號, 具本湖
7. 石油波動 以後의 世界經濟秩序, 新東亞, 1974年 5月號, 具本湖
8. 韓國經濟의 當面課題와 政策基調, 金融, 1974年 2月號, 具本湖
9. 主要 一次產品의 物價展望, 財務部(世界銀行)
10.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와 *Yearbook of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U.N.